

사랑티켓 참가작 | 무대지원사업 선정작
劇壇 아센 제12회 정기공연

톡톡 튀는 캐릭터들의 배꼽폭소!

아버지님의

여기파 배우들이 빚어 내는 코믹 앙상블!
코믹터치로 그려낸 일상의 이웃 이야기!

파티



2006. 7. 20(목) ~ 8. 6(일) / 16회 공연

평일 7시 30분 / 토, 공휴일 6시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 SH공간소극장 www.shgonggan.com 문의: T. 051-611-8518

▶ 관람요금: 일반 15,000원 / 청소년 12,000원

▶ 연출: 호민 ▶ 배우: 유상훈, 구민주, 양지웅, 황차미, 김희지, 김연주 ▶ 음향: 김희지, 김연주

▶ 조명: 윤이훈 / 안무: 최수봉 ▶ 기획: 전상배 ▶ Photo by: 유민정

▶ 주최 / 제작: 극단 아센 <http://cafe.daum.net/acen2000> ▶ 주관: C·E·N (주)코엔

▶ 후원: 부산아쿠아리움, MEGA MART 메가마트, 다우사진학원, 부산해상관광개발,
(복)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JB웨딩, 코코펀, 바다무대, 뮤클 ▶ 예매처: 티켓365, 부산은행, 인터파크



작품소개

톡톡 튀는 캐릭터들의 배꼽폭소!

연기파 배우들이 빛어 내는 코믹 앙상블!

코믹터치로 그려낸 일상의 이웃 이야기!

「아비가일의 파티」는 영국의 어느 중산층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웃간의 모임을 소재로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상적인 상황을 코믹하게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그 흔한 일상생활 속에 내재한 인간의 나약함과 추악한 이면적인 속성을 은근하게 들추어냄으로써 현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여류작가 특유의 섬세한 언어의 터치들은 심각한 극적 상황을 표면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내면의 심리들을 잡다한 일상의 대화 속에 단계적으로 증폭시켜냄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드높이고 있다.

작품 줄거리

부동산업을 하는 '로렌스'와 '베버리' 부부는 오늘 새로 이사 온 젊은 한 쌍의 부부인 '토니'와 '앤' 그리고 이웃에 사는 '수'를 집으로 초대하여 이웃간의 우의를 다지는 모임을 연다. 그들의 모임은 사교관계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잡담과 더불어 각각의 관계를 은밀하게 염탐하고 파악하려는 모종의 술수와도 같이 진행된다.

이들의 모임은 이렇듯 친분관계가 돈독한 이웃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 자기과시욕 그리고 은밀한 불륜으로 진행되는 술과 과장된 웃음이 곁들여진 허망한 일상의 모임이다.

마침내 '아버가일의 파티'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십대들의 무분별한 행동양식에 열을 올리던 그들은 서서히 이제는 삶에 대한 열정과 인생에 대한 도전적 의지가 식어버린 지루하게 반복되어지는 일상에 지친 나약한 서로들의 모습을 인지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만 오히려 자기 기만적인 합리화에 빠져 노골적인 행동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며 모순된 인간의 속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로렌스'는 지병인 심장병이 도지면서 발작하여 쓰러지고 만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든 그들은 자책감에 사로잡혀 절망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의 현실, 새로운 욕망의 배출구를 찾지도 못한 채 기계처럼 연이어지는 이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이제는 이미 삶에 대한 도전의지마저 꺾어버린 현대인은 무리한 변화 없는 안락한 일탈을 꿈꾼다.

그리하여 서로가 선택한 대상은 이웃이라는 이름의 철저한 익명집단. 서로의 외로움을 감추고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더욱더 서로를 몰라가는 사이들, 끊임없이 주고받는 대화는 허망함을 바탕으로 하고 은근한 비방과 상대적인 자기과시욕과 질투와 반복되는 편가르기는 다시 돌아올 일상 속에 또 한 번의 자기 기만의 한 페이지일 뿐이다. 스스로의 일상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외로운 현대인들의 인간적인 속성을 들추어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의 자화상!!!

연출의글



호민 | 극단 아센 상임연출

acen2000@hanmail.net

재치를 뽐내는 아가씨들,
대머리여가수, 꿈의 정원,
마담 M의 초상 외 다수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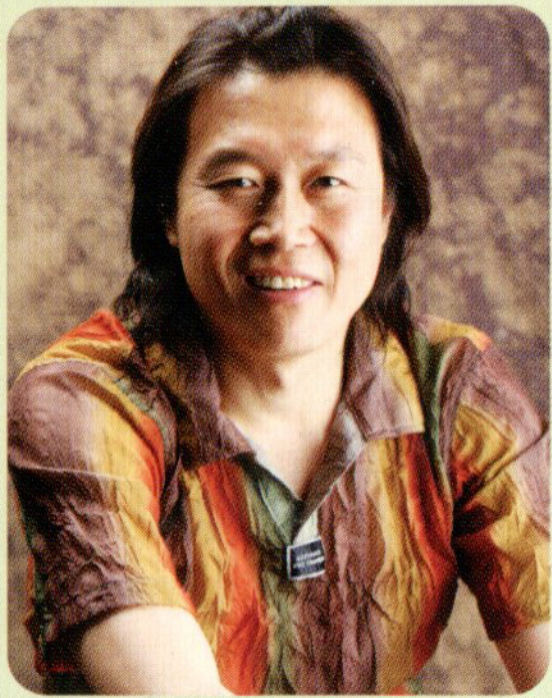
지루하리만큼 변화 없이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현대인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해 간다.

일상의 무미건조함은 나 아닌 타인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과의 암묵적인 인생의 비밀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진 이들은 시기와 질투, 비난과 자기과시욕과 함께 은근한 불륜을 자행해 가며 스스로의 일상에서 벗어나 일탈을 꿈꾸는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우리들이 쓰고 있는 가면의 일상을 독특한 캐릭터들의 코믹화한 상상력의 연기 조화로 드러내 몰 인간화 되어가는 회색빛 현대인의 행위에 대한 이면을 펼쳐 보이는 본 작품이 오늘을 사는 현대의 우리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CAST



유상홀 (로렌스 役)

- 극단 장고개 연습실 대표
- 2006년 부산연극제 남자 우수 연기상

사람의 아들, 내마, 맥베드, 리어왕 외



구민주 (베버리 役)

- 극단 아센 대표
- 1998년 부산연극제 최우수 연기상
- 2001년 부산연극제 우수여자 연기상
- Mail : gumihocacn@hanmail.net

그 여자 이름은 이순례, 이혼의 조건,
불 좀 꺼주세요, 양파,
마담M의 초상 외 다수



황자미 (앤 役)

- 극단 사계
- Mail : mimojam@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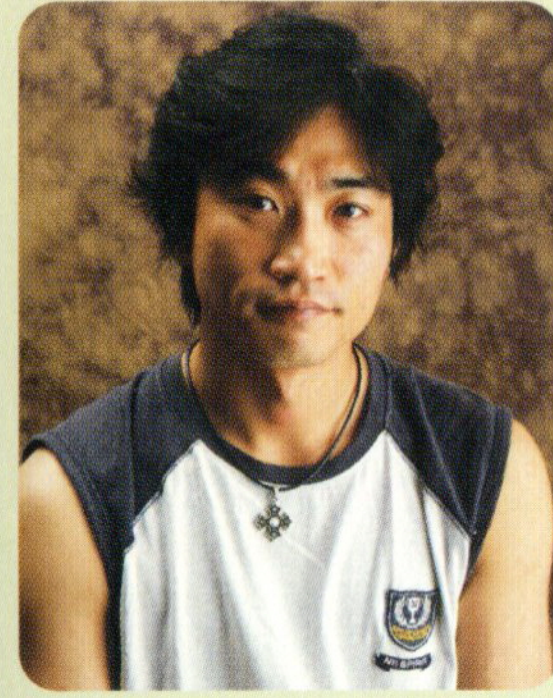
마술가게, 겨울바다 살인교향곡,
사람의 아들, 뮤지컬 결혼, 양파 외 다수



김희지 (수 役)

- 극단 아센
- 동서대 연극과 2학년 재학중
- Mail : liwas@naver.com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 도불유희,
별주부전



양지웅 (토니 役)

- 현 "미지씨어터" 대표
- 2003년 부산연극제 우수 남자연기상

30일간의 야휴회, 가락국기,
아쿠아마린, 트라우마, 지금 이순간,
뮤지컬 결혼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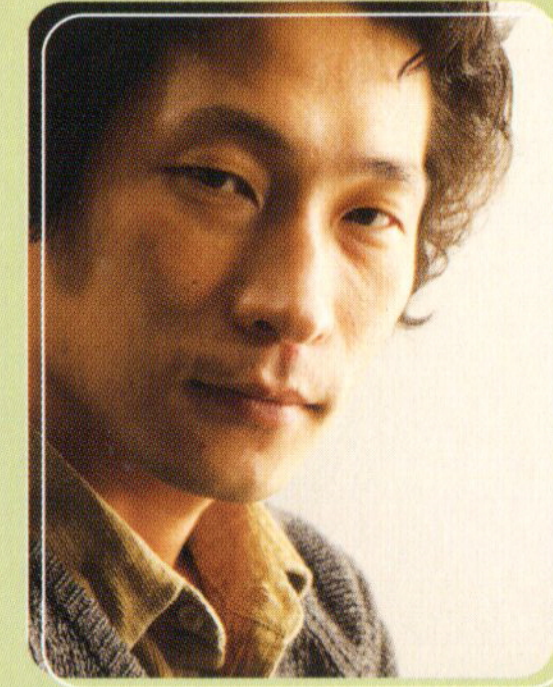


김연주 (수 役)

- 극단 아센
- 동서대 연극과 2학년 재학중
- Mail : hanspink48@ahnmail.net

마담 M의 초상, 도불유희, 별주부전,
배비장전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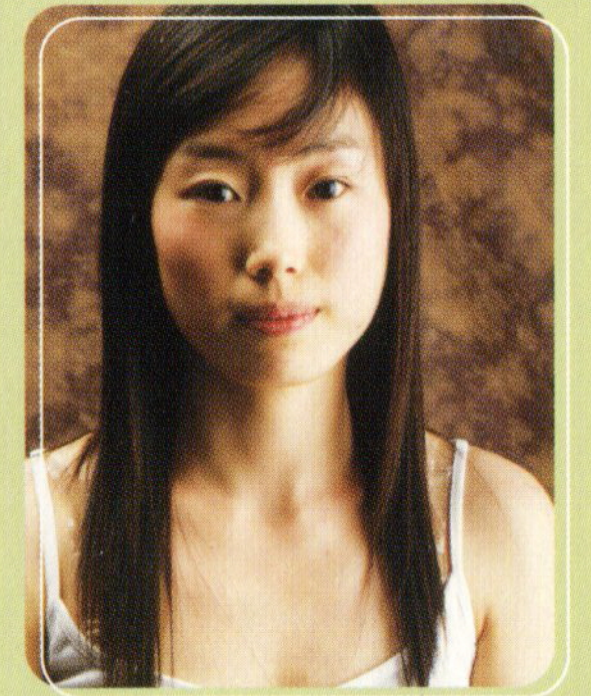
기획 전 상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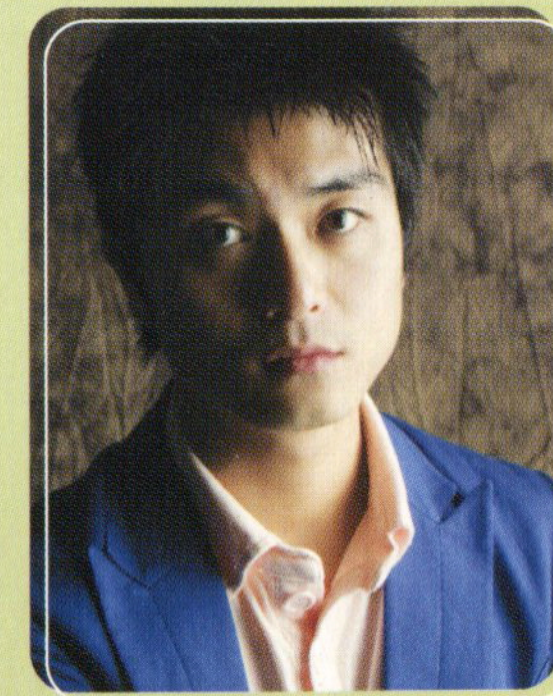
기획 유 선 주



스텝 김 선 미



안무 최 수 봉



장치 양 진 억



조명 허 원 규